

# 시민단체들, '다시 갯버들 심기' 나선다

### 시민행동21·전북생명의숲 등 시민단체, 오늘 전주천서 세계물데이 맞아 기념식·퍼포먼스 진행

시민단체 등은 세계물데이를 맞아 전주천살리기 다시, 갯버들 심기,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22일 오전 10시 세계물데이를 맞아 시민행동21, 전북생명의숲 등 시민단체와 100여명의 시민들이 전주천(남천교 아래)에 모여 전주천의 무분별한 하천개발에 반대하는 마음을 모아 세계물데이 기념식과 갯버들심기, 퍼포먼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여년간 전주천과 전주시민은 오염수로 가득 채워져 악취를 내뿜던 전주천을 생명이 살아가는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다"고 설명했다.

콘크리트하천과 주차장을 걷어내고,

수변에는 갯버들을 심었다. 하천에 여울과 소가 생기며 자연성을 회복하고, 물은 맑아지고, 1급수지표종 수리를 비롯한 여러 어종들이 돌아왔으며, 천연기념물 수달, 멸종위기 2급의 흰목물떼새 등 귀한 동물들의 서식처가 되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2023년 기준없는 하천 버드나무벌목으로 많은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혔으며, 이후 조례 제정에 명시된 대로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하천관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2024년 또다시 사전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남아있는 수목을 모두 벌목하였습니다. 또다시

객관적인 데이터없이 재발된 무차별적인 벌목은 홍수예방이 아니라, 지난 2월 우범기 시장이 발표한 전주천·삼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주천은 시민과 함께 만든 자연하천복원의 귀한 사례로 이미 명품하천으로 인정 받아오고 있다.

이들 단체는 "전주시민이 지켜왔던 전주천 20여년의 노력이 전주시장 개인의 판단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훼손되어가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분개했다.

덧붙여 "전주천·삼천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무분별한 하천개발로 전

주천의 역사를 되돌려 오염수와 악취가 가득한 2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말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주시민들과 함께 우범기 시장의 무분별한 하천개발을 반대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전주천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행정 집행에 동의하지 않음을 보여 주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전주시민들이 만들고 지켜왔으며 이후에도 지켜지길 바라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전주천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 어린이집

### 전주시 송천동 소재 '우리모두어린이집' 선정

전주시 송천동 소재 '우리모두어린이집'이 주말과 휴일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전주시는 우리모두어린이집, 하나금융공익재단, 푸르니보육지원재단과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한 4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하나돌봄어린이집은 정규보육시간 외에도 부모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휴일 근무 등 사유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시간만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올해 주말·공휴일형 47개소와 365형 3개소 등 50개 어린이집을 선정했으며, 우리모

두어린이집은 주말·공휴일형으로 선정돼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공모에 선정된 우리모두어린이집은 긴급 또는 일시 보육이 필요한 1~6세 취학 전 영유아라면 횡수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보육료 지원 대상 외에는 시간당 3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예약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나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hanadobom365.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 마음 편하게 시간 단위로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돌봄 환경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북대병원, 민간해양구조대원 대상 구조역량 강화 응급처치 교육

### 부안해양경찰서 주관 수난대비기본훈련에 응급의학과 김소은 교수 강사로 참여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부안해양경찰서 주관 수난대비기본훈련에 응급의학과 김소은 교수가 강사로 참여하여 민간해양구조대원 91명 대상으로 '구조역량 강화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공의료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증증응급·이송·전원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응급의료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주로 지역 사정에 밝은 해양종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상 사고 발생 시 해경과 협력하여 초동대응, 인명구조 등에 활약한다. 최근 5년(2018~2022년) 사이 해양 조난사고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민간구조세력에 의한 구조율은 약 42%에 달했다.

해양레저인구 증가로 해양 조난사고



전북대학교병원은 부안해양경찰서 주관 수난대비기본훈련에 응급의학과 김소은 교수가 강사로 참여하여 민간해양구조대원 91명 대상으로 '구조역량 강화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증증응급 환자 발생 시, 구조자 및 해안경찰 구

급대원의 초기 처치가 병원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김소은 교수는 민간해양구조대원 대상으로 △해양사고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중요성 △증증응급환자 초기처치 △증증도 분류 및 병원 선정 방법 등에 관하여 실제 사례 바탕으로 교육했다.

김소은 교수는 "증증응급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까지 신속한 이송과 함께, 이송 중 필요한 처치가 적시에 제공되어야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부안해양경찰서와 다양한 협력관계가 마련되어 전북자치도 응급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희철 병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서해안 도서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도민들이 일상과 생업을 안심하고 수행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증증응급환자의 곁을 지키며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 먹는 물 안전성 검증

### 공동주택 '깨끗한 수도물 인증서' 제도 운영

전주시가 수도물 검사 후 인증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최병집)는 전주시민의 64%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수도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깨끗한 수도물 인증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공동주택 '깨끗한 수도물 인증서' 제도는 먹는 물의 안전성 검증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수도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전주시가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수도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와 전주시가 인증하는 '깨끗한 수도물 인증서'를 발급한다.

시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전주 지역 600여 개 공동주택단지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 순차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왔으며, 검사 결과 모든 공동주택의 수도물이 환경부에서 정한 먹는물 수질기준(59개 항목)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시는 검사를 완료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는 '수질검사성적서'와 '깨끗한 수도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 사

실을 주민들에게 공지함으로써 수도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1급수 용담호 상수원부터 각 가정 수도꼭지수까지 단계별로 정확하고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수도물 수질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과 불신을 가진 일반시민들을 위해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해당 가정의 수도물 수질검사 결과를 전자우편을 통해 받아볼 수 있는 '수도물 안심확인제'도 시행 중이다.

최병집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은 "보다 많은 공동주택과 일반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도물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고, 수도물의 음용율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의 경우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저수조와 옥내급수관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도법 규정에 의거해 연 2회 물탱크 청소 및 연 1회 저수조 수질검사, 준공검사 후 5년 경과 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2년 주기로 급수관 상태검사를 위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김옥기 기자

## 전주승화원, '청명·한식' 맞아 개장 유골 화장 확대

전주승화원이 청명·한식을 맞아 개장 유골 화장 횟수를 늘린다.

21일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에 따르면 전주승화원은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청명·한식을 전후로 총 5일을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유골 화장 예약 기수를 30~50기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평일 하루 개장 유골 화장 기수 8기의 최대 8배까지 늘리는 것이다.

개장 유골 화장 예약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장사' 정보시스템을 통해 오는 21일 0시부터 할 수 있다. 화장 예정일 14일 전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개장 유골을 화장하기 위해선 먼저 묘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개장 신고를 하고 개장신고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개장 유골 화장 이용료는 전주·완



전주승화원 내부 모습

주·진안·장수 소재가 2만8000원, 도내 타시·군이 9만 원이다.

효자공양묘지 소재 개장 유골의 경우 화장 이용료가 전액 감면되며, 자연장을 포함한 봉안시설 사용료도

50% 감면된다.

한식은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 중 하나다. 산소에 손을 대도 탈이 없는 날로 여겨 산소에 잔디를 새로 입히거나 비석을 세우고, 이장을 하는 풍습이 있다.

김계현 복지환경부장은 "청명·한식을 맞아 개장 유골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을 마련했다"며 "승화원 전 직원이 특별 근무에 나서 개장 유골 화장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